

대구주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2012.9.23.(나해) 제1801호



| 103위 성인 <문학진, 캔버스에 유채, 1977년, 서울 혜화동성당 소장>

I 금주의 성화

한국 화단의 원로 작가인 문학진(토마스) 화백의 이 그림은 103위 성인화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시성 전인 1976년에 103위 한국 순교복자화로 계획된 것이다. 순교자들은 다양한 신분을 드러내고 있으며 표정이나 자세도 모두 다 다른데, 한 분 한 분 생애와 성품을 고려하여 그린 것이라 한다. 본래는 한 가운데에 파리 외방전교회의 순교자들을 배치하려 했으나, 문 화백의 대부인 박갑성 교수의 제안에 따라 김대건 신부님을 가운데 그리는 것으로 구도를 바꾸었다.

† 오늘의 전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23-26 참조)

순교자들은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모든 순교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과 죄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십자가상 제사를 본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하느님을 위해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순교를 해야 할 터인데, 오늘날 우리의 순교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1독서 지혜 3,1-9

제2독서 로마 8,31-39

복음 루카 9,23-26

화답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딤시다 • 9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 자주 성찰하고 고해합시다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한창현 요셉 신부 | 매천본당 주임

울릉도를 떠나 매천성당에 자리 잡은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떠났다고 하지만, 그곳에는 또 다른 신부님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는 신부님이 항상 계십니다. 그래도 떠날 때의 슬픔은 참 큼니다. 남아있는 교우들도 아쉬워했습니다. 또 다른 신부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박해시기에 신부님들이 교우촌을 방문하고 떠나실 때의 이별의 아픔은 얼마나 클까를 생각해봅니다.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언제 오신다는 기약도 없던 시절에.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는 이날, 김대건 신부님과 같은 날 순교하신 성인 중에 임치백 요셉이란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포도대장 앞에 끌려가 심문을 받는데, “너는 사실 천주교를 믿고 있느냐?”하고 묻자, 그는 “예, 감옥에 들어온 후 기도문을 배우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천주십계를 외워보라.”했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못하자 “십계명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천국에 가려면 여기 있는 이규식(이승훈의 아들)처럼 유식해야 하느니라.”하고 포도대장이 말하자, 그는 “자녀들이 많은 집안에는 큰 자식도 있고 작은 자식도 있습니다. 또 영리한 자식도 있고 둔한 자식도 있으며 어머니께 매달리는 젖먹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식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우리 교회 집안에서 나는 갓난아기입니다. 비록 하느님을 잘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이신 줄은 잘 압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그분을 위해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임치백 요셉 성인은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하였고 그가 죽은 후 그분의 몸은 이상한 빛에 둘러싸여 옥 안을 흰하게 비추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알 수 없는 일에 감동을 받은 옥지기는 임치백 성인의 시신을 거두어 감옥에서 5리쯤 떨어진 언덕에 묻어주었다고 전합니다.

성인들의 이러한 신앙고백의 이야기가 신앙인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교리를 잘 모르고 신앙심도 약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서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오히려 자식을 낳고 길러보면 그때 가서야 부모의 심정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우직하게 주님께 대한 믿음을 삶으로 고백했습니다. 죽음을 맞아들이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하였기에, 많은 이들이 그들의 순교를 보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천주교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말씀으로만 있지 말아야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로 향한 나의 어리석음이 오히려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순교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 서준홍 신부의 성모님 이야기

이윤일 성인 유해 봉안



다가 철야기도와 장엄미사가 거행된 후 1986년 12월 21일 대구 교구청 본관에 준비된 경당에 모셨습니다. 성인의 순교 기념일인 1987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성김대건기념관에서 성인의 순교 120주년 기념미사를 성대히 봉헌하고 성인을 교구의 두 번째 주보로 선포하였으며 **성인의 유해는 성모당의 돌 제대 안에 모셨습니다.** 교구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로부터 1년

우리 교구의 제2주보이신 이윤일 요한 성인께서는 1815년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나 병인박해가 한창이던 1866년 11월 18일 문경 여우목에서 체포돼 1867년 1월 21일 대구 관덕당 형장에서 참수 되셨습니다. 성인의 시신은 형장 근처에 가매장되었다가 다시 비산동에 이장되었습니다. 1912년에 후손 이시영이 경기도 용인군으로 다시 이장했는데, 한동안 무명 순교자 묘소로 알려지는 바람에 1976년에는 수원교구 미리내에 있는 「무명 순교자 묘」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1986년 8월에야 비로소 이 묘소가 이윤일 성인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교구장이셨던 이문희 대주교님은 수원교구장 김남수 주교님에게 요청하셔서 성인의 유해를 대구대교구로 모셔왔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 최초의 성인 유해 이장입니다. 발굴된 유해는 붉은 비단에 싸여 미리내성당에 임시 안치됐

동안 성모당에 고해소를 설치하고 평일에 한 시간씩 고해성사를 베풀고 이어 미사를 거행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관덕정순교기념관이 완공되어, 1991년 1월 20일 이문희 대주교님은 성인의 유해를 관덕정순교기념관의 경당 제대로 옮겨 봉안하시고 제대 축성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인의 유해 일부는 지금도 성모당 제대 아래에 모셔져 있으며,** 또 일부는 성광에 담아 윤일성당, 미리내성지, 절두산 순교성지, 그리고 자매교구인 대만의 대중교구에 보내졌습니다. 이문희 대주교님은 이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67년 1월 21일 바로 이곳에서 참수 치명하신 이윤일 성인은 124년 만에 한줌 흙으로 다시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기에 순교하신 성인과 순교자들은 우리 믿음의 굳은 초석입니다.” 

전례주년 특집 - 순교자 성월

103위 시성의 영광을 125위 시복으로 이어갑시다!

교구 문화홍보실



함되지 못했던 신앙 선조들을 복자위에 올리기 위한 노력이며, 현재 교황청에 청원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시복시성의 참뜻은 하느님 사랑의 정점에 이르신 순교자들을 온 세상에 높이 드러내고,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본받아 후손인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목숨 바쳐 지켜온 신앙을 굳건히 하고, 복음을 더욱 힘차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더욱 관심을 갖고 시복시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986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는 100만 신자가 운집한 가운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 103분의 성인이 탄생했습니다. 역대 교황님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신 복자 교황 요한바오로 2세께서는 광주대교구에서 세례와 견진성사를, 대구대교구에서는 사제 서품식을,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서 200주년 기념대회와 더불어 103위 시성식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200주년을 맞아 세계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바티칸이 아닌 곳에서 순교 신앙선조 103위가 성인으로 선포되는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성식 때 믿음의 초석이 된 초기교회 순교자들을 포함한 다른 신앙 선조들이 시성의 영예를 입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한국 주교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하느님의 종 125위의 시복시성’은 103위에 포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신 순교자의 원형입니다. 비록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 자신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영적으로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순교의 정신으로 무장될 때 우리는 어떠한 난관도 순교 신앙 안에서 극복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순교자 성월을 지내고 있는 지금, 하느님을 증거 하기 위해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순교 선열들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삶이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구현되도록 생활합시다. 

나눔과 섬김의 현장 - 평리성당 사회복지위원회 편

시작이 반! 더불어 살아가니 행복합니다

윤분순(안젤라) | 평리성당 사회복지위원장

저는 평리성당에서 사회복지회 활동을 하며, 서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윤분순 안젤라입니다. 처음 자원봉사를 하게 된 동기는 성당에 다니시는 이웃집 형님의 권유였습니다. 성당을 다니면서, 단순한 개인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안에서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복지관에 밀반찬 조리봉사를 가는 날인데, 가끔은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도 있지만 도시락을 기다리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빨라집니다. 복지관의 월동연료지원으로 독거어르신 한 분은 2년 만에 따뜻한 방에서 주무신다고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보이셨고, 어떤 분은 추운 방에서 생활하다 몸도 아프고 우울증에 시달리셨는데, 우울증까지 다 나은 것 같이라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외에도 매월 한 번 대명동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예수회 장애인들의 집으로 몇몇 친구들과 먹거리를 준비해서 점심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13년째 이 곳 천사들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서로 반갑다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장바구니가 무겁다고 불편한 몸으로 들어주겠다고 야단들입니다.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랑도 참 많지요. 이들과 마주 앉아 있으면 그들의 눈은 마치 호수처럼 맑게 빛납니다. 사랑 가득한 이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제 마음에도 그 사랑이 전해져 그 온기가 집안 가득 전해집니다.



그 순간마다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음에 또한 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는 평리성당 사회복지위원들의 활동 사례를 몇 자 적을까 합니다. 개별적인 활동들도 하시지만, 매주 화요일 복지관 밀반찬 조리를 하며, 매일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복지관 사업 연계를 통해 독거어르신 세대 방문을 통해 음식 만들기, 말벗, 집안 일손 돕기 등을 날씨에 연연하지 않고 주중에 몇 번씩 방문하십니다. 10년 이상, 한 결 같이 봉사하시는 평리성당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랑스롭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반가운 이들과 마주하고 도시락을 준비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 플러스가 되고 삶의 활력소를 얻게 됩니다. 

■ 대구대교구 소식 ■

■ 대구 가르멜 여자 수도원 창립 50주년 감사미사



대구 가르멜 여자 수도원 창립 50주년 감사미사가 9월 14일(금) 오전 11시 대명동 수도원 내 성당에서 교구장 대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의 대구 맨발 가르멜 여자 수도원'은 1961년 제7대 교구장 서정길 대주교님의 초청으로 오스트리아 마리아첼 여자 가르멜 수도원 소속 엘리야 데레사 수녀가 파견되고, 1962년 9월 14일 5명의 수녀가 추가로 파견되면서 창립되었다.

■ 제1회 교구장기 게이트볼 대회



제1회 교구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9월 11일(화) 대구성서실내게이트볼 구장에서 열렸다. 교구 평협에서 주최하고, 가톨릭 선교 게이트볼 동호회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15개의 성당 팀과 13개의 동호회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기를 펼쳤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월간 <빛>

■ 대구PBC 개국 16주년 기념 사랑의 음악회



대구PBC 개국 16주년 기념 사랑의 음악회가 9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 대구 수성아트피아에서 열렸다. 이날 음악회에는 인씨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협연 아래 가수 최성수와 소프라노 김은주, 베이스 이의춘, 생활성가 가수 나정신이 출연해 초가을의 정취를 선사하였다.

기사 및 사진제공 : 대구PBC

웬만하면 걸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 피정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성소모임

수시 성소상담 가능

문의: 김소화데레사 수녀, (010)9383-2754

MR 부부피정 (성경묵상 프로그램)

대구11차: 10.27(토) 7:30~28(일) 16:00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대상: ME주말을 경험한 부부, 사제, 수도자

교육 | 모집

신앙의 해 제47기 선교대학

일시: 10.14(일) 10:30~16:00

장소: 계산문화관, 지도: 이판석신부

주제: 누구나 쉽게 신앙을 전할 수 있다.

주관: 한국천주교 가두선교단

신청: 781-6100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9.25(화) 14:00, 신암성당

9.26(수) 10:00, 죽도성당

9.26(수) 14:00, 성토마스성당

문의: (02)3673-2525

Show Bible : 야곱과 요셉

성경의 인물을 영상으로 만나는 시간

기간: 10.2~30 (매주 화, 19:00~21:00)

장소: 대구바로로딸서원, 회비: 2만원

대상: 말씀에 맛들이고픈 청년

문의: 양체사리아수녀, (010)2503-5185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기간: 10.22(월)~11.2(금) (11박 12일)

장소: 성모님 3대 발현지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비용: 375만원 - 대한항공 이용

문의: 428-5004, www.cttour.org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재속 3회

지원자 모집

예비모임: 11.26(월)

장소: 꾸르실로 교육관-성모당

자격: 55세 이하. 성모님을 따라

봉헌의 삶을 살고 싶은 모든 신자

문의: (051)634-4820, (010)6711-4819

제41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설명회

초~고: 1.5(토)~27(일) (3주)

대·일반: 1.1(화)~2.17(일) (7주)

설명회: 10.13(토) 14:00 매일신문사8층

주관: 마신부님(Rev.Brendan MacHale)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무료 대안 고등학교 학생 모집(여학생)

서울가톨릭청소년_화요일아침예술고등학교

기숙사생활, 학비기숙사비 전액지원

대상: 저소득층자녀, 미술에소질있는학생,

품행단정, 문의: (070)8891-3830

<http://www.flowerdaymorning.com>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 ·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미사	9월 24일(월) 오전 11시	도량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24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오순절평화희마을 후원회미사	9월 24일(월) 오전 11시	수성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미사	9월 25일(화) 오후 2시	주교좌 계산성당
김천지역 학교복음화를 위한 미사	9월 26일(수) 저녁 7시	김천 황금성당
바노성모기도회 월례미사	9월 27일(목) 오후 2시	삼덕성당
대구지역 학교복음화를 위한 미사	9월 27일(목) 저녁 7시	교구청 별관대회합실

수능 집중력을 높여
성적을 올려라!

원방한의원 총명공진단

의학박사(전문) · 한의사 이 정 현(요셉)

☎431-7100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옆
원더풀스파랜드 3층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멋진인생 에스텍
두피센터

SkinCare / Body / Scalp 탈모두피

지점) 남구, 대곡, 동호, 두류, 만촌, 범어, 산격
서변, 성서, 시지, 칠곡3지구, 침산, 구미롯데

상담예약 1588.8850

한일따로식당

하절 중랑로역 하나은행 뒤편

김영일(라자로)
유옥상(도미니카)

☎(053)254-0028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교우님우대할인)

중앙대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수내과

당뇨 / 고혈압 / 신장질환 전문
공단건강검진 / 위, 대장 내시경

인공신장실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건 현(라파엘)

상인역 ☎(053)642-7575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식유

전화 한통하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로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현철(베네딕도)

신격동 대우아파트 앞 / 대형전용주차장 완비 / 여성전용병실

한글시원한병원

의학박사 병원장 노성균(아우구스티노)

☎ 체크하세요!

☑ 위내시경 ☑ 항문(치질)수술
☑ 대장내시경 ☑ 건강검진

www.hangmuns.com 959-7175

위 · 대장 · 항문 클리닉 · 건강검진 · 내시경 · 알콜진

신대구정신과
New Daegu psychiatric clinic

불면증, 갱년기 우울증, 불안, 치매
식사장애(거식증, 폭식증), 비만, 스트레스

원장 · 전문의 김 정 윤(라파엘)

지하철 2호선 감삼역 2번 출구 앞

T. 053)566-0364

행사 | 모임

2012년 성령쇄신 추계 대구대회

일시: 10.27(토) 10:00~18:00

장소: 성김대건기념관

강사: 차동엽 신부, 대상: 일반

문의: (054)954-0951

미용인의 '빛' 모임

일시: 9.24(월) 20:30

장소: 요안나 미용학원

문의: (010)8397-9783

젊은이 모임 - 옛 멤버들을 초대합니다

(70년후반~80대초) 범어동에서 활동

하셨던 성모기사회 옛 멤버 초대

장소: 곤벤뚜알 프란치스코회

문의: 박상규(마리아고보) 신부,

(010)5380-8615

교육 | 모집

다문화 아카데미 1기 봉사자 1단계 교육

기간: 10.10~12.19(매주 수)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교육비: 5만원, 신청: 10.8.(월)까지

주관: 대가대 다문화연구소

신청: 850-3978, 3606

23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안내

일시: 10.6~(5주간, 매주 토) 15:00~21:00

장소: 3대리구청 (월성성당)

대상: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아버지

신청비: 15만원, 문의: 641-5678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팀모집

단계: 창세기,탈출기,마르코,요한사도행전

문의: 255-1582 (화~토 14:00 이후)

이문희 대주교님과 함께하는

페이아르 사르맹 연구회 제5회 공개강좌

일시: 10.6(토) 14:3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대명동) 성심교육관

강사: 곽지상 신부(수원가톨릭대학교)

주제: persona에 대하여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

삼덕유치원 버스기사 채용

서류: 교적사본, 자기소개서(자필),

이력서, 관련서류 등

서류마감: 9.24(월)까지

문의: 782-9380

분도노인마을 주방직원모집(숙식제공)

문의: (054)976-7575, (010)9774-8218

안내

군위묘원 성묘안내

추석당일은 많은 성묘객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추석을 전후해서 성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묘원 관리비(2차분) 납부 안내

2003.1.10전에 장례를 하신 묘지께서는 묘원관리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미납 시, 무연고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 관리과, 250-3003

교구법원 공시 (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허정욱, 최재연

군위묘원 버스운행 안내

신자들의 편의를 위해 매월 1회 교구버스 정기운행을 실시하오니 이용 바랍니다.

운행기간: 5.7(월)부터 ~ 10.8(월) 6개월 간 한시 운행

운행일시: 10.8(월) 9:00

매표기간: 9.24(월)~9.28(금), 44명 선착순

출발장소: 교구청 대건출판사 앞 주차장, 운임료: 왕복 1인당 1만 원

문의: 관리과 250-3003 (전화예매 불가)

•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 운행을 취소할 수 있음 (예약금 반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6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영섭(베드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들안길 네거리 ~ 왕금성당 사이

백두정형외과
어깨 관절경 수술전문
정형외과 전문의/의학박사/원장
배연두(아오스님) 배상근(베드로)
소아청소년과/신생아재활전문/의학박사/원장
배상영(미카엘라) www.baekduos.com
425-5919 평일 09:00~19:00
동원치안센터 건너편

이원의료기
혈압계·혈당계·휠체어·산소치료기
뜸·부항기·복지용구·찜질기
체온계·욕창매트·환자용품·안마기
실버카·보호대·글루코사민·오메가3
미프이 주얼리 변상범(도미니코), 김연숙(아니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 2513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이시우 신경
<http://척추외과> 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세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김동익 소아청소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
야간진료, 일요일 진료
북구 관음동 칠곡 LC 사거리 옆 (한양수정아파트 상가 1층)
(053)323-6006
<http://www.soagwa.net>
원장, 전문의 : 김동익(요한)

한결같은의원
가정의학과 / 소아과 / 피부과 / 내과
레이저클리닉 / 보톡스 / 필러
053)965-1441
반아월 아파트내 2층·원장 문세민 스페라노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서상운(안젤로)
송정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